

# 정부, '비축유 스왑' 전격 시행 산업현장 2000만배럴 풀린다

정부 비축유-기업 원유 맞교환  
SK이노 등 정유4사 모두 참여  
"상반기 원유 수급 문제 없어"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지난 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중동전쟁 관련 국내 석유·가스 가격 동향, 주요 업종 영향 및 대응 등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부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축유 스왑(SWAP·맞교환)'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대체 물량을 담보로 정부의 비축유를 우선 빌려 쓸 수 있게 해 산업현장의 혈맥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와 기업이 도입하려는 원유를 맞교환하는 방식의 비축유 스왑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축유 스왑 제도를 시작해 첫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비축유를 단순히 방출해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줬다 받는 방식으로 기업이 신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비축유 스왑은 한국석유공사법 제 10조,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 사업법 제 16조 및 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을 근거로 별도 법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구입했다는 선적 서류를 확인해주면, 한국석유공사가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중동산 원유를 즉시 내어주고 나중에 배가 도착하면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중동산 원유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보유한 중동산 비축유를 빌려갔다 하면 기본 대여료와 원유를 되돌려주면 된다. 하지만, 타 유종일 경우 기본 대여료 외에 현물가를 적용해 가격 차액을 정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향후 비축유 구매나 저장시설 증설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비축유 스왑에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 모두 참여하게 된다. 이들 기업이 대여를 원하는 물량은 약 2000만 배럴 규모다. 정부는 우선 4월과 5월 두 달 간 비축유 스왑 제도를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비축유가 약 1억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두 달 간 비축유의 20% 수준이 즉시 활용될 전망이다.

양 실장은 "기존 긴급 방출은 주고받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스왑은 확보된 물량을 바탕으로 대여하는 것이라 돌아오는 시점이 확인된다"며 "정유사들이 대체 물량을 확보하도록 촉진하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이번 비축유 스왑 요청 물량보다 많은 대체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실장은 "기업들이 대체물량으로 확보한 물량은 2000만배럴보다 많다"며 "현재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5~6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스왑 운영과 IEA 국제

공조 방출 등을 통해 상반기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비축유를 일방적으로 방출하면 정부 재고는 떨어지고 기업은 물량 확보 노력을 덜 하게 되지만, 스왑은 기업의 재고 소진 시점을 늦추고 정부의 최종 방출 시기도 뒤로 미룰 수 있다"며 "파악된 바로는 6월까지 수급은 문제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 따르면, 후티 반군 참전, 미국 지상전 준비 보도, 이란의 협상 부인 등으로 중전 기대가 낮아지며 국제유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39달러로 전일 대비 1.4% 올랐고 서부텍사스유(WTI)도 104.90달러로 2.0% 상승했다. 2월 말 대비 상승률은 각각 57.8%, 56.5%에 달한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이날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885.61원으로 전일 대비 0.24% 상승, 경유는 1877.00원으로 0.20% 올랐다. 정부가 지난 27일 시행한 2차 최고가격 이후 휘발유는 3.6%, 경유는 3.4% 상승한 상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조선 관련 핵심 소재인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에틸렌 등은 상반기까지 수급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액제 포장재는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고 대체 공급도 추진 중이다. 다만 자동차 생산부품과 가전 내외장재 등 일부 품목은 전쟁 장기화 시 수급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지난달 30일 LS전선 싱가포르지사에서 열린 희토류 공급망 구축 관련 협약식에서 구분규 LS전선 대표(오른쪽부터),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 아만다 라카즈(Amanda Lacaze) 라이너스 대표, 크리스 제니(Chris Jenney) 라이너스 영업/시장개발부 부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S에코에너지

## LS에코에너지, 희토류 원료 확보 연내 방산용 금속 양산체제 구축

非중국 밸류체인 구축 본격화  
이상호 대표 "국가 자원안보 기여"

LS에코에너지가 중국 외 기업으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방산용 희토류 금속 양산체제 구축에 나선다. 중국 편중이 절대적인 희토류 금속·자석 공급망에서 비중국 밸류체인 구축을 본격화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와 LS전선 싱가포르지사서 협약식을 열고 희토류 원료 공급 및 금속의 연내 양산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원료는 라이너스가 공급하고, 금속화는 LS에코에너지가, 영구 자석 생산은 LS전선이 맡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가동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중국 밸류체인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희토류 금속과 자석 공정의 90% 이상을 중국이 맡고 있을 정도로 관련 산업은 중국 자본과 인력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계 기업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도 희토류 금속화 공정을 수행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비중국 밸류체인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중국 희토류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

진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는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통제하며 필요할 경우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 산업과 방위산업 전반이 희토류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일은 공급망 안정과 자원 안보 차원에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연내 베트남 LSCV 공장에 금속화 설비를 구축하고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우주항공과 미사일 등에 쓰이는 방산용 희토류 금속 생산을 시작하고 2027년부터는 로봇과 전기차(EV)용 금속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희토류 산업에서 금속화는 단순 원료 확보를 넘어서는 고난도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LS에코에너지는 방산용 사마륨과 로봇, 해상풍력 등에 사용되는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등 연간 약 2500톤 규모의 희토류 금속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1만톤 이상의 영구자석을 제조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라이너스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자원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봄바람 타고 온 제30회

# 기장멸치축제

2026. 4. 24(금) - 26(일)

기장군기장을대변향일원

초청 가수

24일(금) 정세주 | 천록담  
25일(토) 손빈아 | 채운 | 최지애  
26일(일) 미스터팜 | 김수민 | 장이은

행사 프로그램

24일(금) | 낚시배 승선체험 | 기장수산물 깜짝경매 | 멸치은빛樂 공연 1,2 | 길놀이 퍼레이드 | 개막식  
멸치축제 30주년 기념 퍼포먼스 | 멸치축제 30주년 기념 축하공연 | 해상 불꽃쇼

25일(토) | 낚시배 승선체험 | 기장수산물 깜짝경매 | 멸치은빛樂 공연 3 | 나는 어부야!(맨손 활어 잡기)  
한수원 고리온데이 - 특산물 구매시 바우처 증정 | 기장멸치 가요제 예선  
멸치축제 30주년 기념 콘서트 | 해상 불꽃쇼

26일(일) | 낚시배 승선체험 | 기장수산물 깜짝경매 | 멸치은빛樂 공연 4 | 나는 어부야!(맨손 활어 잡기)  
멸치 젓갈 김치 담그기 및 전담식 | 기장멸치 가요제 본선 | EDM | 시상 및 폐막식 | 해상 불꽃쇼

**무 료 체 험** : 맨손활어잡기(현장접수)/낚시배 승선체험(현장접수)  
**특 별 행 사** : 기장멸치가요제(사전접수)/멸치회무료시식회(1일회)  
문화누리카드 사용 (3일간)  
부산중기청 동행축제(영수증 경품이벤트 3일간)

**문 의 | 접 수** :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051-721-4063)

LG헬로비전 특집방송  
『기장멸치가요제 본선  
(태군노래자랑)』

**| 주최** |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 (문의 : 051-721-4063)  
**| 후원** | 기장군, 기장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기장수산업협동조합, 동부산농협  
대변멸치유자랑협회, 기장수협중앙회협의회, 멸치소매인협회, 대변항상가변영회, 대변해조류양식협회, 대변어촌장터  
해운대비치골프&리조트, 두산에너지빌리티, KBI건설, 이케아동부산점, 더젠크리아, 대선주조(주), 흥일식품

무 료 서틀버스 운행

기간 : 4월 25일(토), 4월 26일(일)  
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승차위치 : 동해선 기장역 제2주차장 앞 도로변